



## 예비음악교사 대상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 설계\*

임새롬\*\*, 최경식\*\*\*

### 요약

이 연구는 음악교육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예비음악교사 대상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을 설계한 것이다. 이를 위해 Maxine Greene의 예술교육철학과 LCE 예술교육, 융합교육을 고찰한 후 세 분야의 공통점과 특성을 고려하여 도출한 핵심적인 수업원리를 활용하였다. 설계 내용은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수업목적과 수업설계의 방향, 수업단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수업모형을 선정 후 세부내용으로 조직하였다. 이 수업은 융합기반 음악교육을 통해 예비음악교사의 미적 경험과 음악 중심의 융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수업 전문성 및 긍정적 정체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학습자의 개념 발달과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의미를 재조직화할 수 있도록 구성주의에 입각한 ‘의식적 주목-체화 인지-의미 창조의 수업단계를 가지며, 각 단계는 강의, 교사 모델링, 마이크로티칭으로 구성된다. 6영역의 성취기준 및 ‘아쉬운-가능성 있는-우수한’의 서술형 3단계 성취수준으로 구분하였고, 수업모형은 Bybee의 5Es를 선정하였다. 한 학기 과정으로 총 12회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 수업은 예비음악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음악적 삶뿐 아니라 학습자들의 삶에 음악이 깊이 자리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음악교사로 성장하게 할 것을 기대한다.

● 주요어: 융합교육, 음악교육, 예비음악교사교육, Greene, LCE 예술교육, 미적 교육

\* 접수: 2022. 02. 17, 수정: 2022. 03. 21, 확정: 2022. 03. 24

\* 본 논문은 임새롬의 2022학년도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췌 및 정리하였음.

\*\* 제1저자, 강북중학교 교사, 음악교육학 박사

\*\*\* 교신저자, 목원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조교수, E-mail: kyeong@geogebra.or.kr

## I. 서론

좋은 음악교육은 음악교사의 철학으로부터 시작된다. 스스로 철학하는 음악교사는 단순히 음악적 지식을 암기하게 하거나 악보를 해독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음악에 내재된 힘과 아름다움에 함께 공감하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음악교사의 철학은 음악교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정체성에서 음악교육의 목적이 확립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자기 자신’으로 먼저 서야 하며, 능동적인 교사로서의 능동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시선으로 작품을 관찰하고 참여하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들일 때 비로소 예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음악교사의 역할이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선(先)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수업 현장에서는 정작 교육을 통해 신장시키고자 하는 역량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수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사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이 받아본 수업방식에서 자기 수업의 자원을 찾아 교육한다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자신이 경험한 것 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데 거부감을 가지고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교육철학자 Maxine Greene의 예술교육철학은 교사교육과 심미적 예술교육에 온 힘을 쏟았다. Greene은 예술 작품을 소재로 학습자 자신과 삶을 통찰할 수 있는 예술교육을 실천했으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교사 양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찌감치 간학문적이고 학제 융합적인 사고를 가졌던 인물로 융합교육의 좁은 의미부터 넓은 의미까지 아우르는 교육을 해왔다. 융합교육의 좁은 의미란 흔히 알려진 내용으로서 분야를 넘나들며 지식과 기술을 연계·통합하는 교수자의 입장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는 교육주체의 모든 입장을 포괄하여 교육을 통해 배운 것, 가르친 것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삶과의 연속성을 가지고 맥락화하는 것이다. 즉 융합이란 곧 자기 자신과 자기 삶과의 융합이며 아는 것의 실천(praxis)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융합교육의 범위를 수업을 계획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확대하여 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학습자의 인지와 사고 과정, 실천의 융합을 위한 교육으로 아우르고자 하였다. Greene은 교사가 철학을 가지고 널리 깨어 있음으로 학생들을 안내하는 조력자로 존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철학하며(doing philosophy) 삶에서 실천하기를 강조하였다. 이에 임새롬·민경훈·백성혜(2021)은 앞선 연구에서 Greene의 예술교육철학과 이를 방법론으로 구현하고 있는 Lincoln Center Education(이하 LCE)의 예술교육, 그리고 융합교육을 고찰하여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수업실천에 필요한 핵심적인 수업원리를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를 활용한 후속연구로서 성공적인 음악교육의 실천을 위해 예비음악교사들의 선경험을 미적·융합적으로 고취할 수 있는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 II. 융합의 개념 및 연구 방법

기존 융합교육연구에서 융합은 흔히 둘 이상의 다른 종류 및 분야의 지식이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물리적으로 통합한 것과 구분되며, 융합교육은 원래의 속성을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교과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융합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은 어딘가 완전히 이해되지 못한 느낌이 있다. 왜냐하면 위의 설명은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을 뿐, ‘화학적 결합’이 무엇이며 작용이 일어나는 주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융합교육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융합이라는 제목으로 타 교과와 연결 혹은 통합한 학생 대상 융합 수업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많으며, 내용이 간학문·다학문·초학문의 구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융합, 즉 화학적 결합은 어디에서 일어나며 과연 학습자를 수업계획에서 배제하고 교과끼리 합친 프로그램 자체를 융합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지, 융합교육의 목적과 주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와 개념을 재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조대현(2017)은 ‘융합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통합된 환경 아래 이루어지는 ‘자신’만의 개별적 결과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명제적이거나 지시적 환경이 아닌 ‘자신’이 주체가 되어 직접적인 활동 속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가르치기 위해 구성한 수업내용의 화학적 결합과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와 사고의 화학적 결합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학습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학습자의 인지와 내면에서 일어나는 융합’보다 ‘교수자가 계획하고 준비한 화학적 결합의 결과물로서의 융합’의 관점에서 융합을 수업의 과정이 아닌 목적처럼 여기고 여러 교과를 묶고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직접 경험을 통해 생성되는 결과물로서의 융합은 ‘자신’이 토대가 되고, ‘자신’만의 새롭고 의미 있는 창의적 결과물로서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반복될 때 융합의 영역이 확장·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직접 경험을 통한 학습자의 의미 있는 융합은 사회 및 생활과의 연계성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융합교육은 학습자를 주체로 하여 학습의 목적이 그 내면에 도달해야 하고 이것이 행위로 실천되기 위한 최적의 교육방법이라는 관점으로, 융합교육의 범위를 교과 간·분야 간 융합 수업을 계획하는 교수자 및 연구자의 입장에서 확대하여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또 하나의 교육주체인 학습자의 인지와 사고 과정 내 융합을 위한 교육으로 아우르고자 한다. 융합교육은 융합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창의역량의 함양에 목적’(태진미, 2014)을 두고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면서 개방성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관점을 수용하며, 학습자 자신이 주도하여 유사하거나 상이한 범주의 지식을 창조적으로 연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다.

그러나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등의 교육은 다른 고등교육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수자 중심의 전문지식 전달과 암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임연기, 2009; 임정하 외, 2016; 홍혜원 외, 2010). 음악 예술을 향유하는 시민을 기르는 살아있는 음악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음악교사의 살아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음악교사의 미적 경험과 철학은 예비음악교사 양성단계에서부터 융합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길러질 수 있으며, 음악교사 정체성의 확립과 음악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은 이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예비음악교사교육은 예비음악교사의 주도적인 직접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설계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의 적용 과정’이자 ‘논리적으로 종합하는 과정’(Richey, R. C., & Klein, J. D., 2014)이며, 교수설계 이론은 선행문헌, 자료, 경험, 직관, 논리 등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Reigeluth, 1983). 이에 연구자는 선행연구(김영미, 2016; 신

지혜, 2019; 2020; 오지향, 2012; 주희선, 2014; 최소영, 2017; 홍현미, 2017; Butler, 2001; Fernandez, 2010; Napoles, 2008)들을 통해 수업설계 및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후, 연구자의 교직 경험과 직관에 근거하여 ‘1. 음악교사들의 수업 전문성과 정체성은 교사 자신의 미적 경험의 질과 융합 역량에서 비롯될 것이다. 2. Greene의 예술교육철학을 토대로 한 융합기반 음악교육은 예비음악교사 양성교육에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러므로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수업원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Greene의 예술교육철학과 이를 방법론으로 실현하고 있는 LCE 예술교육, 그리고 융합교육을 분석하여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를 도출하였다(임새롬·민경훈·백성혜, 2021; 임새롬, 2022).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는 총 12가지로 다음과 같다.

<표 1>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

범위	특성	수업원리
미적 교육 수업원리	음악의 특성	의식적 주목, 체화 인지, 의미 창조
공통 수업원리	프락시스적 특성	직접 경험, 상호작용과 소통, 참여와 실천
융합교육 수업원리	융합적·맥락적 특성	개방성, 융합적 사고, 실제적 지식
학습지원 수업원리	수업도구의 장	환경 조성, 성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위의 수업원리 중 회기별로 집중 수업원리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수업원리는 각각이 분류되어 있으나 분절되지 않는 유기성과 총체성을 특징으로 하며, 예술 작품과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한 개개인의 역량이 되기도 한다. 12개의 수업원리는 학습자들이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언어적·비언어적 교육활동 속에서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 Ⅲ.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설계

위의 수업원리 중 회기별로 집중 수업원리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수업원리는 각각이 분류되어 있으나 분절되지 않는 유기성과 총체성을 특징으로 하며, 예술 작품과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한 개개인의 역량이 되기도 한다. 12개의 수업원리는 학습자들이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언어적·비언어적 교육활동 속에서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 1. 수업목적

위의 수업원리 중 회기별로 집중 수업원리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수업원리는 각각이 분류되어 있으나 분절되지 않는 유기성과 총체성을 특징으로 하며, 예술 작품과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한 개개인의 역량이 되기도 한다. 12개의 수업원리는 학습자들이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언어적·비언어적 교육활동 속에서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 2. 수업설계 방향

이 수업은 Greene의 예술교육철학과 LCE 예술교육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성주의에 입각하여 1.의식적 주목 - 2.체화 인지 - 3.의미 창조의 총 3단계로 설계하였다. 1단계는 이론과 철학에 관한 강의, 2단계는 학습자이자 예비교사로서 교사 정체성과 수업 전문성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모델링 수업, 3단계는 이를 적용하고 실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티칭(micro-teaching)으로 구성하였다.

각 단계별 주제 및 학습목표는 각 차시로 세분화되어 단계성을 띠고 있으며, 수업마다 학습자들의 상태를 진단하여 다음 수업 5Es의 참여-탐색-설명-정교화-평가가 유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수업의 내용을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익히고 사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맥락 정보와 디지털 미디어 학습자료가 제공되었으며, 성찰을 통해 학습내용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철학을 다질 수 있는 핵심 질문이 포함된 과제가 함께 제시되었다. 이는 기존 교사양성교육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며 이러한 차별화는 예비음악교사들의 감각 경험과 인식에 신선한 깨달음을 유도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수업설계의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설계의 방향

### 예비음악교사를 위한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설계의 방향

-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는 미적 경험이 일어나는 교사를 양성한다.
- 성찰하는 음악교사로서 자신의 교육신념과 철학을 가진 교사를 양성한다.
-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닌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교사를 양성한다.
- 음악과 예술뿐 아니라 음악 수업 또한 하나의 예술임을 아는 교사를 양성한다.
- 학교 현장에서 실천이 가능한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지식이 형성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한다.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향상과 물리적·심리적·음악적 환경 조성에 능한 교사를 양성한다.
- 배움과 삶이 융합하고 예술을 통한 깨어 있음의 태도가 수업의 바깥으로 확장되어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교사를 양성한다.

## 3. 수업단계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수업단계는 ‘의식적 주목, 체화 인지, 의미 창조’의 총 3단계로 설정하였다. 각 단계의 명칭은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미적 교육 수업원리이자 미적 경험을 위한 방법이며, 동시에 전체 수업의 각 단계별 목표이다. 전체 회기별 주제 및 학습목표, 수업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3> 융합기반 음악교육 회기별 주제 및 학습목표, 수업내용

회기	단계	주제	학습목표	세부내용
1	의식적 주	심미적 교사로의 시작	·Greene 예술교육철학의 필요성 이해 ·미적 교육과 관계맺기: 성찰을 통해	·단어에서 오는 느낌 기록하기 ·미적 경험과 미적 교육이란? ·Greene의 예술교육철학이란? ·미적 교사의 역할과 태도 ·자기 강점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융합교육은 왜 필요한가?</li> <li>·융합기반 음악교육은 필요한가?</li> <li>·성찰의 의미와 방법</li> <li>·성찰의 시간</li> </ul>
2	목	융합형 교사로의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낮선 융합과 친해지기</li> <li>·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수업원리 이해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회기 과제 피드백(실천 가능성)</li> <li>·융합의 핵심요소</li> <li>·미적 교육 수업원리</li> <li>·융합교육 수업원리</li> <li>·공통 수업원리 이해</li> </ul>
3		낮선 분야로의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교과와의 융합 아이디어 살펴보기: 또래 학습</li> <li>·타 분야의 미적 경험 살펴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 아이디어 과제 갤러리</li> <li>·우수과제 선정 후 의견 발표</li> <li>·과학에서의 미적 경험은?</li> </ul>
4		융합 미적 교사로의 실전 기술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융합기반 음악교육 모델링에 주목하기</li> <li>·수업도구 살펴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 아이디어 동료평가 내용 피드백</li> <li>·모둠별 평가 루브릭 작성하기</li> <li>·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사례 소개</li> <li>·학습지원 수업원리 이해</li> <li>·교과서 및 교육과정 탐색</li> <li>·수업안 작성법</li> </ul>
5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또래의 수업결과물 탐색을 통한 자기 발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라포르 형성을 위한 담소</li> <li>·예비 수업안 발표 및 피드백</li> <li>·성찰일지 작성</li> </ul>
6			미적 체험1 <When David He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 융합 미적 경험과 교사 모델링을 통한 상상력과 공감, 심미안 향상</li> <li>·소리, 공간, 글, 음악 탐색을 통한 미적 경험과 자신과의 연계</li> </ul>
7	체 화 인 지	미적 체험2 <관소리 '홍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음악의 미적 경험과 교사 모델링을 통한 심미안 향상</li> <li>·교사이자 학습자로서 우리 전통음악에서의 미적 경험과 자신과의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보전 구연 들으며 상상하기</li> <li>·소리 및 발림, 추임새 익히기</li> <li>·모둠별 사설 및 발림 만들기</li> <li>·자막지 작성 후 북장단에 맞춰 발표</li> <li>·성찰을 통한 공감과 공유</li> </ul>
8		미적 체험3 <Route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낮선 장르의 미적 경험과 교사 모델링을 통한 심미안 향상</li> <li>·교사이자 학습자로서 친숙하지 않은 장르에서의 미적 경험과 자신과의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즉흥리듬 만들기</li> <li>·블루스 스케일 설명 미션</li> <li>·즉흥선율 만들기</li> <li>·&lt;Route 66&gt; 단계별 학습 및 분석</li> <li>·작품 감상 및 재즈 상식 이해</li> <li>·성찰을 통한 공감과 공유</li> </ul>
9	의 미 창 조	Art Sh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가로서의 정체성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로의 생활 속 음악 이야기, 미적 경험, 자신의 음악 공유</li> </ul>
10		모둠별 수업시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미적 음악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및 실전 역량 배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년별 모둠이 작성한 수업안 발표 및 수업시연, 피드백 및 토론과 성찰</li> </ul>
11		모둠별 수업시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작위 모둠이 작성한 수업시연 및 수업안 발표, 피드백 및 토론</li> </ul>
12		개인별 수업시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별 수업시연, 피드백 및 토론</li> </ul>
	개인별 수업시연2			

가. 의식적 주목 단계: 이론 및 철학

‘의식적 주목’은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바탕이 되는 Greene의 예술교육철학과 이 교육의 필요성 및 사례를 소개하는 단계로, 학부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를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주목하는 ‘태도’의 연습에 목표를 둔다. Greene의 미적 교육, 미적 경험, 심미적 교사란 무엇인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한다면 낯설고 지루한 이론과 철학 강의가 될 수 있으므로 예비음악교사들의 자기화가 이루어지도록 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교수자의 역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상황과 연계할 수 있는 질문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현실성을 높이고, 관련된 수업사례를 소개하여 융합기반 음악교육에 주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업과정은 LCE 예술교육의 Keynote와 Open topic, 그리고 Philosophy를 중심으로 Reflection하는 단계를 거쳤으며, 특히 이 단계의 마지막 회기에서는 Workshop with LC Access, TA Panel on Teaching Artistry as a Career와 같은 교사 실전교육과 더불어 예비적 성격을 띠는 수업안 작성(Learning Lab)을 구성하여 실제적인 지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초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다음 단계를 위해 과제로 작성한 예비 수업안을 발표한 후 피드백을 통해 성찰하는 과정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수업의 구성과 진행에 대한 감각을 가늠하고 다음 단계의 교사 모델링 수업을 관찰하는 안목 생성의 기회가 된다. 이 단계의 수업구성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의식적 주목 단계의 수업구성 및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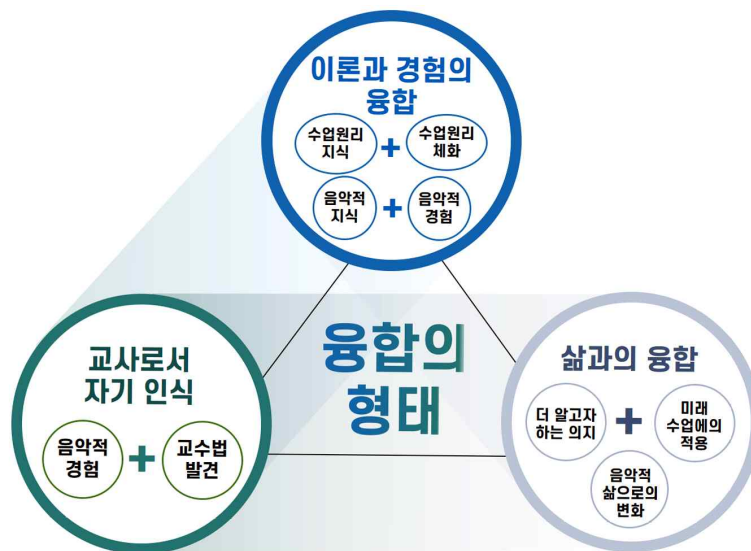
#### 나. 체화 인지 단계: 체험

‘체화 인지’는 직접적인 미적 경험을 통해 자기 몸과 감각을 열어 인지하는 체험으로서 수동적으로 앉아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도록 미적 경험의 ‘정서적 측면’에 방점을 둔 단계이다. 몸의 지각으로, 감각으로 신체화하고 이를 성찰함으로써 내면화하여 자신의 경험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LCE 예술교육의 Workshop-Performance-Reflection을 재구성한 것이며, 이는 마치 음악적 긴장과 이

완의 구성과 같다.

또한, 이 단계는 교사의 모델링(modeling)을 통해 직접 수업을 경험함으로써 3가지 융합적 현상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는 학습자로서 자신의 성장 배경에서 이미 알고 있던 음악적 지식과 음악 경험이, 그리고 의식적 주목 단계에서 학습한 수업원리의 지식이 이번 단계에서 체화되는 융합의 현상이다. 둘째는 학습자이자 교사로서 수업에 참여하고 관찰하는 과정의 융합이다. 미래의 음악교사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며 전문가 교사의 수업을 통해 음악 경험 속에서 교수법을 발견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해 보는 상상력을 발휘한다. 셋째는 개인으로서 이어서 설명할 3가지 소재의 음악 경험을 통해 음악을 더 알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과 의지가 형성되고 음악적 삶으로의 융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림 2] 체화 인지 단계를 통한 3가지 융합 결과



3회에 걸쳐 다양한 주요 작품에 집중하는 6~8회기 수업은 전문가인 교사가 미적 경험을 위한 수업을 구성한 후 초보자인 예비음악교사들에게 직접 수업한다. 이로써 학습자로서 학습활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예비교사의 관점으로 교사의 수업태도와 역할, 수업단계의 내용과 활동의 구성을 관찰하게 된다. 그리고 성찰 활동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활동하였으며, 교사는 이를 위해 어떤 질문이나 유도를 하였는지, 어떤 수업도구를 활용하였는지 되짚어보고 새롭게 발견한 것에 대해 기술한다.

미적 경험을 위한 작품은 학습자인 예비음악교사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의 배경이나 음악이 익숙하지 않으면서 다소 생소하고 여러 층위를 가지고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많은 곡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신체 감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 다. 의미 창조 단계: 적용 및 실습

‘의미 창조’는 어떤 대상에 대해 자기만의 아이디어와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이를 맥락적으로 연결·적용하여 실제로 또래 앞에서 실습해 봄으로써 서로의 생각과 의견 공유를 통해 자기회귀적인 새로운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둔 단계이다. 이는



마이크로티칭으로 실행하는데, 마이크로티칭은 예비교사들이 수업을 경험해 보면서 자기평가를 통한 분석 및 동료평가와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대상이 되는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 전문성 강화에 효과적이다. 1963년 Stanford대학교에서 시작된 마이크로티칭은 실시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 수정·활용할 수 있다. 주로 수업계획-수업시연-피드백 및 평가-재수업의 4단계나 재수업을 생략한 3단계로 진행한다.

이때, 재수업은 피드백을 받은 내용을 반영·수정하여 다시 같은 수업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피드백의 반응을 다음 회기에 반영하고 피드백 및 평가에서 토론과 성찰을 포함한 변형된 4단계를 절차로 정하였다. 즉 수업계획-수업시연-토론 및 피드백-성찰 및 반영이다. 피드백은 자기·동료평가지 작성 후 자기분석과 동료 및 전문가의 피드백이 토론과 함께 진행되며, 성찰은 이를 돕는 질문이 적힌 성찰일지를 기록하고 다음 회기 수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 수업 종료 후에는 각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녹화 혹은 녹음된 파일을 배부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마이크로티칭 과정



이 단계는 LCE 예술교육의 Learning Lab, Lesson Plan Lab과 Reflection을 재구성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이 단계를 시작하는 9회기에서 Art Share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이는 LCE의 동명의 프로그램을 본딴 것이다. 자신의 음악 경험과 실기를 공유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교사이기 전에 음악가로서의 모습을 통해 음악이 가진 힘을 확인하고 유대감을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듣는 개별 학생이 아니라 미적 경험을 공유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예술가이자 사명을 가진 교사로 바라보며 연대할 수 있다.

4회기 동안 진행되는 수업시연은 모둠별 2회, 개인별 2회로 구성된다. 모둠별 수업시연 2회는 각각 익숙한 구성원, 그리고 학교 현장을 대비하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구성원과 함께하도록 계획하였다. 모둠별 수업시연은 수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이 혼자 수업을 맡았을 때보다 부담이 적고, 수업을 준비하며 공동으로 고민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연습이 된 상태에서 개인별 수업시연에 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3단계 활동에서는 1단계에서 구성된 학습공동체가 작동한다. 학습공동체에 존재하는 공동체 정체성(community identity) 때문이다. 공동체 정체성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고 구성원들 사이에 활용가능한 전문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의식이 발달하는 것’(Bielaczyc, K., & Collins, A., 1983)이다. 이는 좋은 음악교사가 되기 위한 경험의 과정 중인 학습자들에게 학습 의지를 부여하며, 그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연대하게 하는 동력이 되면서 공동의 목적이 공명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촉진자는 학습공동체가 더욱 효과적인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구성원들의 성장, 변화의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인지하며 이해해야 한다.

이로써 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수업구성

수업 목적	융합기반 음악교육을 통해 미적 경험과 음악 중심의 융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예비음악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및 긍정적 정체성을 확립한다.		
단계	의식적 주목	체화 인지	의미 창조
성격	이론 및 철학	체험	실습
수업 형태	강의	교사 모델링	마이크로티칭 학습공동체
획득 지식	개념적 지식	경험적 지식	실천적 지식
수업 주제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이해	경험으로서 융합	실천으로서 융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eene의 예술교육철학</li> <li>• 융합교육 이해</li> <li>• 과학 분야의 미적 개념</li> <li>• 융합기반 음악교육 실천 방안 구상</li> <li>• 교육과정 및 수업안 이해</li> <li>• 교과서 구성 이해</li> <li>• 예비수업안 작성</li> <li>• 성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합창음악을 통한 미적 경험</li> <li>• 관소리를 통한 미적 경험</li> <li>• 제즈를 통한 미적 경험</li> <li>• 모델링을 통한 교수법 및 수업원리 체화</li> <li>• 성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듈별 수업시연</li> <li>• 개인별 수업시연</li> <li>• 자기 및 동료평가지 작성</li> <li>• 토론 및 동료 피드백</li> <li>• 전문가 피드백</li> <li>• 성찰</li> </ul>

### 3. 수업단계

예비음악교사의 수업 전문성 발달을 평가할 성취기준으로 학습목표와 평가기준, 학습자 특성 고려, 수업내용 구성 및 수업태도, 수업자료 및 환경 조성의 6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성취기준별로 ‘아쉬운-가능성 있는-우수한’의 3단계 성취수준으로 구분하였다. LCE에서는 성취기준으로 ‘TA의 실천을 위한 필수요소’를 7가지를 제시하고, ‘충분한(adequate)-좋은(good)-탁월한(excellent)-이상적인(ideal)’의 4단계로 구분한 성취수준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도 각 성취수준을 리커트 척도의 점수화가 아닌 구체적인 서술로 분류한 것은 각 단계를 보다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서술된 내용이 곧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인 만큼 상위단계로 도달하고자 하는 동기가 촉진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예비음악교사의 수업 전문성 발달을 판단

할 수 있는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4> 수업 전문성 성취기준

영역	항목	성취기준
학습목표 및 평가기준 설정	학습목표의 명료도	융합기반 음악교육에 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향성을 지닌 음악적인 학습목표를 진술한다.
	학습목표와 수업내용 및 평가기준의 일체화	학습목표와 수업내용, 평가기준이 일체화되어 연속된 교육활동을 구성한다.
	평가기준의 구체성 및 평가 가능성	평가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학습자의 활동자료를 통해 평가가 가능한 평가기준 및 평가수준을 진술한다.
학습자 특성 고려	학습자 특성 고려	학습자의 특성 및 정서적·음악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인 수업을 구성한다.
수업내용 구성	체계성	수업활동에 중심점과 체계성이 있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업을 구성한다.
	학습자 직접 경험 및 수업구성원 간 상호작용성	학습자의 주도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교사-학습자 혹은 학습자-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수업을 구성한다.
	성찰로써의 완결성	적절한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의미 창조 및 참여와 실천을 위한 내면화의 시간을 통해 학습자의 배움과 삶을 연결하고 하나의 완결된 경험으로서의 수업을 구성한다.
	개방성	학습자의 개방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관점과 적극성을 촉진하는 수업을 구성한다.
	융합적 사고	교과 간, 예술 간, 수업과 삶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구성한다.
	실제적 지식	맥락적이고 과정적이며 연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을 포함하여 수업을 구성한다.
수업태도	흥미 유발	활동의 시작에 신체적·언어적 활동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태도를 가진다.
	역동성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밝은 수업 분위기 형성을 위해 때에 맞게 몸을 움직이며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표정이나 말투, 목소리로 수업하는 태도를 가진다.
	유도성	집중해야 할 대상이나 내용에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주목할 수 있도록 의도를 가지고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이끄는 태도를 가진다.
	능동성	능동적인 태도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지속시키며 수업의 질을 만들어가는 태도를 가진다.
	공감력	학습자의 응답이나 의견에 반응하여 해결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가진다.
	수업진행력	수업 전반에 대해 숙지하여 이해도가 높고 진행이 자연스러우며 어색함이 없이 매끄러운 태도를 가진다.
수업자료 준비	수업자료 준비도	필요한 학습자료나 교수내용지식을 미리 정교하게 준비하여 학습자의 호기심을 즉각 충족시키고 수업을 원활히 이끈다.

	매체활용도	디지털 미디어 매체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고 질이 좋은 자료를 선별하여 수업에 적절히 활용한다.
수업환경 조성	물리적·심리적 환경 조성도	학습자가 적극적·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심리적 수업환경을 조성하여 소통에 노력한다.
	음악적 환경 조성도	학습자의 깊이 있는 노래나 악기 연주 및 감상 활동, 교사의 연주 등으로 음악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표 5> 수업 전문성 성취수준

영역	아쉬운	가능성 있는	우수한
학습목표 및 평가기준 설정	학습목표가 모호한	학습목표가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이상적인
	학습목표와 일체화되지 않는	학습목표와 다소 일체화되는	학습목표와 일체화된
	평가기준이 모호한	평가기준이 더 필요한	평가기준이 이상적인
학습자 특성 고려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습자 특성 고려가 더 필요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수업내용 구성	체계적이지 않은	다소 체계적인	체계적인
	설명만 하는	대체로 설명하는	직접 경험하는
	성찰하지 않는	성찰이 더 필요한	성찰로 완결하는
	개방성이 없는	개방성이 있는	개방성이 강한
	융합하지 않는	융합이 어려운	융합하는
	실제적 지식이 없는	실제적 지식이 더 필요한	실제적 지식이 있는
수업태도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	흥미 유발이 더 필요한	흥미를 유발하는
	소극적인	적극적인	활기찬
	방임하는	언급하는	유도하는
	의존하는	꿈틀대는	능동적인
	지나치는	반응하는	공감하는
	수업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수업진행이 평범한	수업진행이 매끄러운
수업자료 준비	준비하지 않은	준비하는	준비가 완벽한
	매체를 활용하지 않는	매체를 활용하는	매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수업환경 조성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비음악적인	다소 음악적인	음악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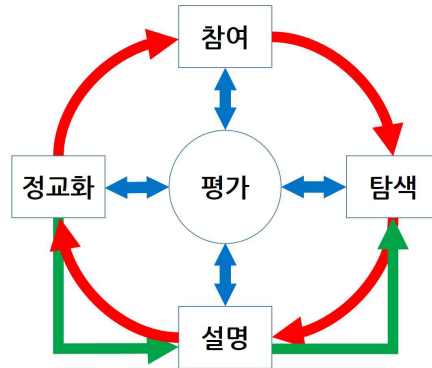
### 5. 수업모형 선정

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데 필요한 수업모형을 선정하고자 다양한 수업모형을 탐색하였다. 여러 수업모형을 살펴본 결과 예비음악교사들의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Bybee(2009)의 5Es 모형을 선정하였다.

5Es는 BSCS(Biological Sciences Curriculum Study), 즉 생물과학 교육과정 연구에서 사용된 수업모형으로 참여(Engagement)-탐색(Exploration)-설명(Explanation)-정교화(Elaboration)-평가(Evaluation)의 앞글자 E를 따서 붙여진 모형 이름이다. Bybee는 5Es 모형이 과학 탐구의 과정에 적용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수업모형의 여러 단계에서 학생들은 증거와 추론 간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하고(참여) ② 조사를 완료하고 스포츠음료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프로토콜을 따른다(탐색). ③ 과학적 탐구에 대해 읽고(설명) ④ 물과 비교한 스포츠음료의 이점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스포츠음료의 이점에 대한 단락을 작성(정교화)한다. ⑤ 집에서 만든 스포츠음료를 디자인하고, 음료를 테스트하여 제작한 광고를 학급에 제시(평가)한다. 이렇듯 5Es는 기본적으로는 과학적 탐구와 관련된 학생들의 역량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뿐 아니라 21세기 기술(21st Century Skills)의 개발에도 효과적임을 Bybee는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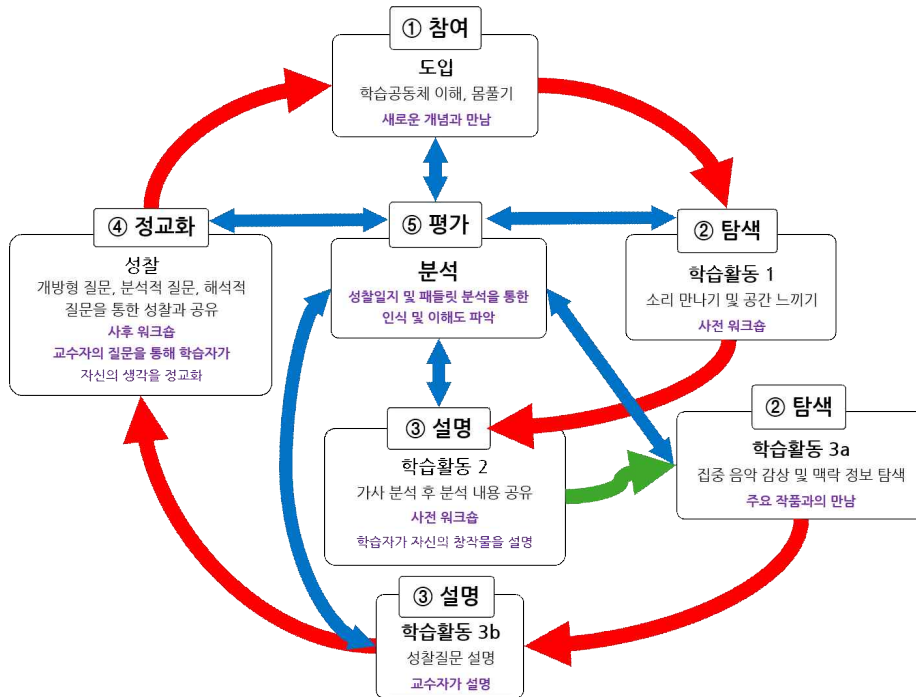
[그림 5] 5Es 수업모형



이 모형은 평가를 중심으로 순환반복되며 1단계 참여와 2단계 탐색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세 단계는 역으로 환류가 가능하다. 이는 필요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 반복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하게 한다. 각 단계는 평가에 반영되며 다음 단계를 위한 자료이자 근거가 된다. 5Es의 각 단계별 학습자의 상태 또한 계속해서 평가에 반영되어 다음 단계의 수준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매 수업 후 학습자들의 상태를 진단하여 다음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는 좀 더 견고한 이해 과정 안에서 학습이 가능하다.

이러한 5Es 모형의 장점을 활용하여 Greene의 예술교육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신체화로 인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수업으로 시연하는 과정의 회기마다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악을 통한 심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그림 6] 5Es 수업모형을 적용한 실제 수업사례 개념도



이로써 Greene의 예술교육철학을 기반으로 개발한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와 5Es 모형을 적용하여 3단계의 수업으로 설계한 이 교육을 통해 수업 전문성과 심미안을 갖춘 철학하는 교사 양성교육 수업설계를 제안하였다. 예비음악교사는 지속적인 미적 경험과 성찰을 통해 음악교육의 목적과 음악교사 정체성을 인식하고, 교육의 결과로 향상된 수업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음악적 삶뿐 아니라 학습자들의 삶에 음악이 깊이 자리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Greene은 ‘예술로부터 사회적 상상력을 깨우고 예술적 시민성을 높여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널리 깨어 있음(wide-awakeness)’과 교육을 통한 ‘변화’에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그의 예술교육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식과는 달리 예술을 수업의 중심에 두면서도 예술 작품(의 감상이나 창작) 자체를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작품을 대하는 참여자의 태도가 위치한다. 이러한 미적 교육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뿐 아니라 교사교육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교사들의 수업자원이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며, 자신의 교과에 대한 철학이 곧 교육의 당위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아직도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은 사실적·개념적 지식 전달 중심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무엇을 알게 하고 싶은가?’에 관한 성찰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음악교사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음악교육의 실제적인 감각과 지식으로 음악과 예술을 관통하는 본질을 이해하고 수용

하는 음악가로서의 태도와 이를 학교에서 전문성 있게 구현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태도이다.

이에 이 연구는 철학하는 교사로서 널리 깨어 있는 음악에의 태도와 수업 전문성을 확보함에 따라 음악교사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서의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때, 융합은 학문 재구성의 방법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지식으로 형성되어 학습자 개인의 삶과 연계·실천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학교 교육을 통한 음악교육은 기능 습득과 활동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적 경험을 위한 역량으로서의 심미안을 성장시켜 자기 삶과 융합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기 12회기 동안 진행되는 이 수업은 ‘융합기반 음악교육을 통해 미적 경험과 음악 중심의 융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예비음악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및 긍정적 정체성의 확립’에 목적을 두고, 7가지 설계 방향을 구성하였다. 또한, 수업을 3단계로 나누어 ‘의식적 주목-체화 인지-의미 창조’의 점진적인 학습을 통해 철학, 몸의 감각, 수업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하였다. 수업 전문성 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은 6영역 3단계로 설정하여 거듭되는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변화하는 학습자의 발달 정도를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각 회기는 Bybee의 5Es 모형으로 유연한 반복과 환류가 가능하도록 조직하였다. 이로써 융합기반 음악교육을 받은 예비음악교사는 ‘확고한 음악교사 정체성을 바탕으로 수업 전문성과 심미안을 갖춘 철학하는 교사’로서 미적 경험을 통해 살아있는 교실을 만드는 조력자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안내할 수 있듯이 철학하는 교사는 학습자가 예술 작품을 바라보며 사유하고 의미를 창조해나가는 철학의 과정을 안내할 수 있다. 예비교사교육으로서 융합교육은 교수자가 이미 계획 속에서 구조화시킨 프로젝트를 학습자가 체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협업의 과정과 상호작용, 개방성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찰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융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양질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계된 수업이 향후 예비음악교사교육에 적용되어 실제적인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김영미(2016). 음악과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예술교육연구*, 14(1), 53-76.
- 신지혜(2019). 중등 음악과 예비교사의 마이크로티칭 경험 탐색: 피드백과 동료와의 협동 과정을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48(1), 125-144.
- \_\_\_\_\_ (2020). 모의수업을 경험한 중등예비음악교사의 교사 정체성 변화 탐색. *음악교육공학*, (44), 87-107.
- 오지향(2012). 중등 음악과 예비교사들의 마이크로티칭 효과 분석. *예술교육연구*, 10(3), 121-144.
- 임새롬, 민경훈, 백성혜(2021).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 개발. *음악교육공학*, 49, 69-93.
- 임새롬(2022). **맥신 그린(Maxine Greene)의 예술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 예비음악교사 대상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설계 및 적용**.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연기(2009). 교원양성기관평가의 발전 방향과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123-143.
- 임정하, 김경민, 조은영(2016). 창의·인성교육 강좌가 사범대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제연구*, 29(1), 43-68.
- 이애란, 태진미(2016). 예술융합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유아교사와 초등교사의 인식 및 요구. *예술교육연구*, 14(3), 47-63.
- 조대현(2017). 음악 중심 융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 개발. *음악교육공학*, (31), 21-42.
- 주희선(2014). 교육실습여부와 모의수업 경험에 따른 예비중등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의 차이 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2), 91-106.
- 최소영(2017). **초등 STEAM 교육의 창의적 설계 활동을 위한 교수설계 원리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태진미(2014). 영재를 위한 융합교육(STEAM) 자료 개발 및 적용. *영재교육연구*, 24(4), 703-728.
- 홍현미(2017).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혜원, 이창수, 장기철(2010).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인식 비교. *교육문제연구*, 17(1), 1-18.
- Butler, A.(2001). Preservice Music Teachers'Conceptions of Teaching Effectiveness, Microteaching Experiences, and Teaching Performanc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3), 258-272.
- Bielaczyc, K., & Collins, A.(1983). Learning communities in classrooms: A reconceptualization of educational practice. In Reigeluth, C. M.(Ed.)(1999). *Instructional Design Theories and Models: A New Paradigm of Instructional Theory. Vol. II*. 최옥 · 박인우 · 변호승(2010). **교수설계 이론과 모형**.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Bybee, R. W.(2009). The BSCS 5E instructional model and 21st century skills. In *Paper commissioned for the workshop on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science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21<sup>st</sup> century skill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 Board on Science Education.
- Fernandez, M. L.(2010). Investigating how and what prospective teachers learn through microteaching study. *Teaching & Teacher Education*, 26(2), 351-362.
- Geiger, V. et al.(2018).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designing online learning: Fostering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capabilities in mathematical modelling. *ZDM*, 50(1), 217-232.
- Napoles, J.(2008). Relationships among instructor, peer, and self-evaluations of undergraduate music education majors' micro-teaching experienc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6(1). 82-91.
- Reigeluth, C. M.(1983). *Instructional-Design Theories and Models: An Overview of their Current Statu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박성익 · 임정훈 역(1993). **최근의 연구동향에 따른 교수설계의 이론과 모형**. 파주: 교육과학사.
- Richey, R. C., & Klein, J. D.(2014).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s, strategies and issues*. New York: Routledge.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The instructional design of Convergence-based music education for prospective music teachers\*

Im, Saerom\*\* and Choi, Kyeongsik\*\*\*

(Gangbuk middle school, Mokwon University)

---

### Abstract

This study designed convergence-based music education classes for prospective music teachers to achieve the successful purpose of music education. To this end, after contemplating Maxine Greene's philosophy of art education, LCE art education, and convergence education, the core teaching principles derived in consideration of the common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fields were used. To this end, after contemplating Maxine Greene's philosophy of art education, LCE art education, and convergence education, the core teaching principles derived in consideration of the common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fields were used. To this end, after contemplating Maxine Greene's philosophy of art education, LCE art education, and convergence education, the core teaching principles derived in consideration of the common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fields were used. This class aims to improve teaching expertise and positive identity by strengthening aesthetic experiences and music-oriented convergence capabilities for prospective music teachers through convergence-based music education. Based on learners' concept development and understanding, there is a class stage of 'conscious attention-embodied recognition-meaning creation' based on constructivism so that learners can reorganize their meanings, and each stage consists of lectures, teacher modeling, and micro-teaching. There are 6 areas of achievement standards and the descriptive three-step achievement level of 'not enough-possible-outstanding' were divided, and the class model was selected as Bybee's 5Es. This class, which runs for a total of 12 sessions for a semester, is expected to help prospective music teachers grow into music teachers who can guide music deeply into learner's lives as well as their own musical lives by demonstrating their teaching expertise

● Keyword: Convergence education, Music education, Education for prospective music teacher, Greene, LCE art

---

---

\* Submitted: 2022.01.27. Revision: 2022. 03. 21. Proof: 2022. 03. 24.

\* This thesis is summarized from the Saerom Im's Doctoral thesis for the academic year of 2021.

---

\*\* 1st Author's affiliation and position

\*\*\* Correspondence Authors affiliation and position, E-mail: kyeong@geogebra.or.kr